

**은빛 요양원**  
 풍요로운 노후의 삶을 도와드립니다

1호점 중부 뉴저지 Eatontown 2호점 서부 뉴저지 Pittstown

풍부한 경험과 수준 높은 전문가 서비스  
 가정 같은 또 하나의 생활공간  
 간호, 간병, 전문 재활치료  
 한국문화 정서와 여가 활동

한국어 직통  
**732.770.0609**  
 www.은빛요양원.com

**헤럴드 기어 변호사**

**HAROLD J. GERR**  
 Attorneys at Law

자동차 혹은 트럭사고,  
 척추나 디스크에 관련 된 사고,  
 공사현장 사고, 뼈가 부러진 사고,  
 범죄로 희생양이 된 사고,  
 각종 상해, 사망사고

1-877-249-4600  
 47 Raritan Ave. Highland Park, NJ

16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

**준 풀턴 부동산**  
 908-295-7053

준 '원츨' 풀턴  
 Sales Associate  
 Re/Max Instyle Realty  
 june@instyle Realty.com

1378 Route 206 Suite 202, Skillman, NJ 08558 junefulton@remax.net

**KWIK MORTGAGE**  
**퀵 모기지**

주택융자, 상용건물, SBA융자

타은행에서 융자 거부된 분 상담  
 Gabriel B Park (NMLS 1161224) Senior Loan Officer  
**Direct (908) 293-2215**  
 gpark@kwikmortg.com / Licensed NJ NY PA CA FL CT MD VA TX

**VESTA-OH**  
 Kitchen & Bath Renovation

**부엌, 욕실 전문그룹**

오용운 토마스 | m 917-662-8353 | kitchenoh@hotmail.com

**은퇴플랜 및 재정설계 컨설팅**

**Advisors U Trust, LLC**  
 401k, IRA, Annuity (개인연금)  
 생명보험, 메디케어 & 건강 보험  
 자동차 주택 건물 비즈니스 보험

**박가브리엘** (732) 865-1597  
 Licensed in NJ & NY advisorUtrust@gmail.com

**메디케어 무료상담**  
 올바른 플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박미원**  
 Independent Licensed Agent

문의 전화 **908 655 5339**

**이문식**  
 Family Vision Center

**Dr. Douglas M. Lee, Optometrist**  
 각종 안질환 치료  
 백내장 검사 및 녹내장 치료  
 검안 및 시력 교정  
 아동 시시 치료 및 시력 교정  
 콘택트렌즈 및 안경 맞춤

**P. 732-393-1210**  
 1734 Lincoln Hwy(Rt.27)  
 Edison, NJ 08817  
 에디슨 H-Mart 앞

**에디슨 현대정비** Hyundai auto repair  
 종합정비  
 Auto Repair • Service

김도영 (Philip Kim)  
 C/P : 732-853-5696  
 Tel : 732-543-1110  
 1808 Woodbridge Ave.(Rt.514)  
 Edison, NJ 08817

**BOYLAN**  
 Funeral Home

Edison **732-572-0076**

**ND EAST BRUNSWICK**  
 NEW IMAGE DENTAL LLC

444 Ryders Lane  
 East Brunswick, NJ 08816  
 Tel. 732-432-8388

J.Woo D.D.S.

**강준한의원**  
 (732)287-8881

1734 Lincoln Highway Rt.27, Edison  
 에디슨 H-Mart 앞 확장 이전

**진료 안내**  
 한의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통증과  
 교통사고 후유증  
 각종 한약(보약, 치료약)  
 침, 뜸, 부항  
 중국 전통식 지압

**HONORS REVIEW** East Brunswick

SAT, ACT, APs, Enrichment Programs  
 우성현 스테파노 **732-254-3349**  
 3 Lexington Ave East Brunswick NJ 08816

성지순례, 단체관광, 크루즈 전문

**가고파여행사**  
 201-802-0820

353 Broad Ave. Suite 203 Leonia, NJ 07605

**종합건축 AAMD construction**

주택, 상가, 무료 상담 및 견적, 면허, 보험소지  
 골치 아픈 문제(건축허가, 누수), 바닐 담장, 데크, 마루, 욕실, 주방,  
 지하실, 상가 리모델 등 건축 전반에 책임사공(기본 1년 보증)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해 드립니다.(성당 교우 10% DC)  
**732-964-9787**  
 email: aamdconstruction@yahoo.com

**HYUNDAI TOYOTA KIA NISSAN**  
**SANSONE** AUTOMALL  
 BEST CAR, BEST PRICE  
 90-100 RT.1 Avenel NJ 07001

**Manny Kim**  
**201-852-3232**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사시오  
 평협회장 한상철 빈센시오

대림 제03주일  
 2019년 12월 15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 - 7:00 PM  
 수 ~ 금 - 9:00 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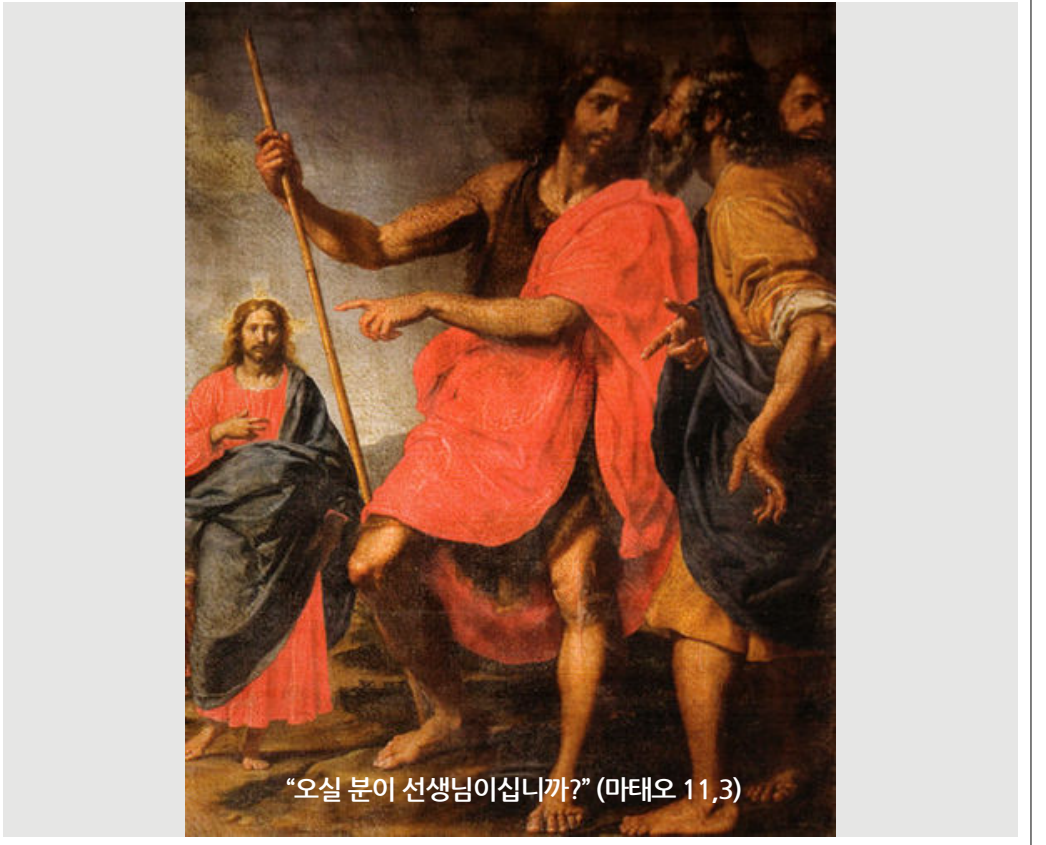
주 일 (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 - 4:00 PM  
 일요일 (영어) - 8:00 AM  
 (영어) - 10:00 AM  
 (한국어) - 11:30 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 Tel: 732-356-1037  
 # Email: office@edisonkcc.org  
 # 근무시간: 화~금 10am~3pm  
 http://www.edisonkcc.org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사시오  
 평협회장 한상철 빈센시오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이번주 전례 안내>**  
 # 제1독서 이사야서 35,1-6L .10  
 # 화답송 시편 146(145),6c-10g L (© 이사 35,4b 참조)

**# 복음환호송**  
 이사 61,1 참조(루카 4,18 인용)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복음** 마태오 11,2-11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전례 성가	입당성가 92번	봉헌성가 511번, 221번	성체성가 175번, 153번	파견성가 88번
성체 분배	# 12/15 광신규, 유용희		# 12/22 백영숙, 오애희	
안내 봉사	# 12월: 자비의 모후 Pr. # 1월: 천상의 지혜 Pr.	# 12/15: 에디슨 # 12/22: 올드브릿지 # 12/29: 노스브런스워		
신자들의 기도	# 12/15: 광신규 루시아	# 12/15: 한광동 바오로 한정식 글라라		



**미사 지향**

**연미사** (봉헌자)

- 조원봉 (빈첸시오) - 가족, 이스트브런스윅 구역 임광선(요한)가족, 오석건(안토니오) 가족
- 최혜경 (데레사) - 가족
- 장인석 (미카엘) - 가족
- 이화자 (마틸다) - 가족
- 이명자 (세실리아) - 가족
- 김명자 (헬레나) - 가족
- 김준호 (베드로) - 가족
- 이동현 (요셉) - 가족
- 한석희 (빈첸시오) - 가족
- 박소희, 성진아 - 김동근(사도요한) 가족
- 이용규 - 이용문(안드레아) 가족
- 김교식 (야고보) - 가족
- 한정숙 (레지나) - 가족

**생미사** (봉헌자)

- 오흥순(카타리나) - 오.사.모
- 김 비오, 마리안나 가정 - 최 율리아나

**지난 주 우리의 정성**

구분	1차 헌금	2차 헌금	합계
KCC	\$1,252	\$664	\$1,916
OLM	\$3,080	\$1,388	\$4,468
<b>합계</b>	<b>\$4,332</b>	<b>\$2,052</b>	<b>\$6,384</b>

미사 참석: 192명

**감사헌금**

박재영 (\$100) 뉴욕CLC공동체 (\$200)

**교무금 안내**

이상화(12)	성낙순(11-12)	황덕삼(11-12)
박애순(9-12)	이숙희(6-12)	하연승(11-12)
우영인(11-12)	민규란(7-12)	곽유리안나(11-12)
이선이(1-12)	이재구(7-12)	박재영(11-12)
최율리오(12)	<b>합계: \$2,560</b>	

• 교무금, 개인 및 대축일 감사헌금, 주일헌금, 2차 헌금  
- Payable to OLM  
(교무금의 경우 월, 세대주 이름 및 본명을 꼭 기입해 주세요)

**구역 및 단체 모임 안내**

- # 먼로 구역모임 - 일시 및 장소: 12월 15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
- # 사우스브런스윅 구역모임 - 일시 및 장소: 12월 21일 (토) 오후7시, 이승권(요한) 형제님택

**공지 사항**

# 2차 헌금 안내  
- 오늘(12월 15일) 미사 중 성탄절 꽃장식을 위한 Christmas Flowers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2019 새신자 송년회  
- 일시 및 장소: 12월 15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맛있는 식사와 재미있는 퀴즈쇼, 푸짐한 상품, 행운권 추첨이 준비되어있으니 올 해 에디슨 성당에 처음 나오신 새신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대림 판공성사  
- 일시 및 장소: 12월 17일 (화) 저녁8시 성당  
- 본당 신부님과 손님 신부님2분께서 판공성사를 주실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바랍니다.

# 대림 특강  
- 일시 및 장소: 12월 22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강사: 대전 가톨릭대 영성관 지도교수 노호영(미카엘) 신부님  
- 주제: 은하수와 별 & 신앙이야기  
- 주제 성구: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마태2,10)

# 성탄축하 구역 및 단체(개인포함) 장기자랑  
- 일시 및 장소: 12월 25일 미사 후 친교실  
- 성탄 축하 무대를 푸짐한 상품과 함께 마련하오니 모든 구역과 희망 단체 및 개인은 공연 내용을 오용운 토마스 아퀴나스 행사분과장님께 신청바랍니다. (917-662-8353)

# 2019년 구역별 교우 주소록 배부  
- 각 구역장님들을 통해 12월까지 주소록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구역에 소속되지 않은신 분들을 위해 친교실 성물대에 주소록을 별도로 비치해두었습니다.

# 자원봉사자 모집  
- 12월 19일(목) 성당 내부 크리스마스 꽃장식을 도와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Amazon Smile 안내  
- Amazon을 통해 구매하시는 상품가격의 0.5%를 Amazon 에서 에디슨 한인 성당에 기부하게 됩니다.  
- smile.amazon.com으로 이용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사용방법은 홈페이지 Gift란을 참고 바랍니다.  
<https://www.edisonkcc.org/donation/>

# 이냐시오 영신 수련  
- PRE-CLC(기초수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이사벨라 자매님께 문의바랍니다.  
- 문의 및 신청: 이 이사벨라

# 바오로딸 시청각통신성성교육원 학생모집  
- 과정: 입문 / 중급 / 성바오로 신학영성 중 선택  
- 방법: 우편과 이러닝(동영상 강의) 성경공부  
- 원서: <http://uus.pauline.or.kr>  
- 마감: 2020년 1월 31일  
- 문의: 성당 사무실 또는 uus@pauline.or.kr

# 박화성(헬레나) 자매님께서 선교부에 \$500 기부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지난 주일 바닥청소에 수고해주신 대건회, 야고보회 분들과 친교실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을 도와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 프란치스코, 최규학 프란치스코, 하건철 안토니오, 이정우 바오로, 오옥순 수산나, 정영옥 수산나, 최경삼 안나, 김경희 수산나, 오흥순 카타리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2-11**

그때에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머는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나?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예언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가 네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 앙 칼 럼**

〈이스탄불의 어린 사제〉 박노해

폭설이 쏟아져 내리는 이스탄불 밤거리에서 커다란 구두통을 멘 아이를 만났다. 야곱은 집도 나라도 말,글도 빼앗긴 채 하카리에서 강제이주당한 쿠르드 소년이었다. 오늘은 눈 때문에 일도 공치고 밥도 굶었다며 진눈개비 쏟아지는 하늘을 쳐다보며 작은 어깨를 으쓱한다. 나는 선 채로 젖은 구두를 닦은 뒤 뭐가 쥬 먹고 싶냐고 물었다. 야곱은 전구알 같이 커진 눈으로 한참을 쳐다보더니 “빅맥, 빅맥이요!” 눈부신 맥도날드 유리창을 가리킨다. 학교도 못 가고 날마다 이 거리를 헤매면서 유리창 밖에서 얼마나 빅맥이 먹고 싶었을까 나는 처음으로 맥도날드 자동문 안으로 들어섰다. 야곱은 커다란 햄버거를 굶주린 사자새끼처럼 덩싹 물어 삼키다 말고 나에게 내밀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담배를 물었다. 세입쫄 먹었을까? 야곱은 남은 햄버거를 슬쩍 감추더니 다 먹었다며 그만 나가자고 하는 것이었다. 창밖에는 흰 눈을 머리에 쓴 대여섯 살 소녀와 아이들이 유리에 바짝 붙어 뚫어져라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야곱은 앞으로 만날 때마다 아홉 번 공짜로 구두를 닦아주겠다며 까만 새끼 손가락을 걸며 환하게 웃더니 아이들을 데리고 길 건너 골목길로 뛰어들어갔다. 아, 나는 그만 보고 말았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몰래 남긴 햄버거를 손으로 떼어 어린 동생들에게 한입 한입 넣어주는 야곱의 모습을 이스탄불의 풍요와 여행자들의 낭만이 흐르는 눈 내리는 카페 거리의 어둑한 뒷골목에서 나라 뺏긴 쿠르드의 눈물과 가난과 의지와 희망을 영성체처럼 한입 한입 떼어 지성스레 넣어주는 쿠르드의 어린 사제 야곱의 모습을.



일전에 강론을 통해 소개해드렸던 글을 이렇게 다시 상기 시켜드립니다. 쿠르드의 그 어리고 가난한 소년은 자기도 배고프지만 함께하는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려고 먹던 햄버거를 남겼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자비의 희년에 하신 어떤 강론에서 ‘자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선이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의 행동이며 우리에게 다가와서 도움을 요구하는 이들에 대한 진정한 관심입니다. 이것은 그 행위의 가치를 오직 하느님만이 보시고 이해하시는 숨겨진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시기에 우리 주변에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선을 행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묵상 나눔 (대림 제 03주일)**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마태11,3)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지금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마태 11,6)

믿음의 확신을 가진 계기가 있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마태 11,7)

나의 신앙생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았던 적이 있습니까?